

새 책

▶논어와 데이터:데이터 지향 정치 언어의 고전1(정성욱 지음)=논어 데이터 지향 정치 언어의 보고로 보고 새롭게 해석했다. 한반도 내외가 한층 편안해지려면 구사되어야 할 좋은 정치 언어의 원형을 제시한 고전으로 논어를 되살리는 작업이 긴요하다는 생각에 쓰여진 책이다. 미디언연구소 부. 2만8000원.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제이크 듀시 지음, 허창수 옮김)=책은 저자가 발견한 성공한 삶을 이끄는 에너지와 태도, 지혜 전반이 담겨 있다. '작가의 말'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한다면 목적을 가진 삶, 헌신하는 삶, 성취로 충만한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연금술사. 1만8000원.



▶마크롱의 시련과 영광(아담 플로라이트 지음, 우진하 옮김)=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해 풀어냈다. 대선 성공 비결, 선거 전략부터 영부인과의 관계 등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까지 더해져 유럽의 상황,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문학사상. 1만7000원.



▶너 때문에 내일 회사 가기 싫어!(이남석 지음)=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싫고, 이직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람' 때문이다. 저자는 평범하고 평온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장인들이 마음 편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안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쁜 놈' 사총사(마키아벨리안,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사디스트)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들을 구분하고 센스있게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계절. 1만3800원.



▶어디로든 가고 싶다(황현탁 지음)=여행지를 찾지 않고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또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언론인 등이 쓴 36권의 책을 통한 '상상 속의 여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깊은샘. 1만5000원.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김인식 지음)=저자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33일간의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를 통해 보여준다. 청년들에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년층에게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노년층에게는 현재를 더 보람차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다. 마음의숲. 1만5000원. 오온지기자 ejoh@ihalla.com



국익을 초월한 한·미 혈맹 신화는 없다

김준형의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가스라이팅 같은 미 의존 미래 위해 자율성 회복을

한국 사회에는 미국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 그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고 이어진 전쟁과 빈곤의 나라에서 구해준 미국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과 분단, 냉전 대결구도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으로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던 그들이 제주4·3 등 한국현대사에 남긴 족적은 상호성이나 평등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란 부제를 단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유구하게 흘러온 대미 인식 체계를 살피고 한·미 동맹의 신화를 파헤쳤다. 양면적이지만 두 개의 얼굴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한·미 관계의 역사를 차례로 훑으며 건강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첫 만남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었다. 그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 두 나라는 햇수로 139년, 세기로는 3세기에 걸친 관계를 맺어 왔다. 하지만 그는 긴밀한 관계에서 출발한 동맹이 한국에게 중독이 되어 버렸으며 이를 '가스라이팅' 현상에 비유했다. 한국은 종합국력이 세계 10위권이고, 북한보다 40배의 군사비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국력이나 대외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저자는 합리성과 국익의 실용주의가 작동하기 어렵고 모든 영역이 한·미 동맹으로 환원되는 현실에서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반미도 친북도 아닌 합리성의 확보이자 제도화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이 한국을 혈맹이자 친구로 부는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으나 미국은 역사적으로 동맹을 동등한 친구로 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4년이 동맹은 영원할 수 없고 국익을 초월한 신화는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듯, 바이든이 등장했다고 동맹을 국익 이상의 신화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했다. 창비. 2만4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제주 출신 동화 작가 현요아 에세이 "제주만 벗어나면 행복하리라 믿었다"



제주에서 추억을 쌓고 있는 관광객들. 스물다섯 현요아 작가의 에세이는 제주 토박이에게 이 땅은 '환상의 섬'이 아니라 아프고 쓰린 일상이 있는 삶의 공간임을 드러낸다.

코로나19 시국에 해외로 떠나지 못하는 관광객들은 오늘도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다. 제주살이 열풍이 한풀 꺾였다고 하나 제주 섬에 대한 '로망'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표지에 흐르는 제목이 도발적일 수 있겠다. '제주 토박이는 제주가 싫습니다'라고 했으니 말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19년을 살았고 서울에서 6년째 지내는 중이라는 동화 작가 현요아씨. 그가 제주와 서울 생활의 단상들을 모아 그 같은 표제의 에세이를 냈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제주, 서울 두 곳 다 집이 아닌 듯했으나 스물다섯에 깨달은 게 있다. 제주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강원도든 마음을 잠시 내려놓은 곳이 고향이라고. 슬픔을 숨기고 살 필요는 없지만, 기쁨을 숨길 필요도 없다고 했다. 창비. 2만4000원.

19년 제주, 6년 서울 생활 제주 토박이의 성장 기록 "어디 있든 튼튼히 지내길"

부정이 오면 부정 대로, 긍정이 오면 긍정 대로 살자는 이 젊은 작가는 "고통뿐인 사건에서도 웃음을 고르는 힘"이 생겼으며 그 반이

라도 독자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지난 사연들을 풀어냈다. 현 작가는 제주를 '환멸의 섬'이라고 칭했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제주 특유의 고고 입시 제도다. 그는 "고등학교 교복으로 서열을 매기던 제주"라는 말로 적지 않은 제주 아이들이 10대부터 겪게 되는 '열패감'을 표현했다.

문예창작과로 진학하며 '인서울'한 작가는 잠시 학벌에 연연하며 허우적했지만 차츰 과거에서 헤어나왔다. 서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여행을 하고, 자신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늘면서 즐거움도 찾아왔다. 저 먼 기쁨이 아니라 오늘 기쁨을 만나는 법도 배웠다.

이 책은 "제주도만 벗어나면 행복해지리라 믿은 사람의 이야기"이나 제주를 떠나오니 행복이 찾아왔다는 식으로 끝이 나진 않는다. 여러 일에 치이는 동안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디딜 힘이 생겼다는 제주 토박이의 성장기다. "언젠가 내게 환상의 섬으로 여겨질 고향 제주를 용서하기로 했다"는 현 작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당신만의 행복을 안고 튼튼히 지냈으면." 펍크몰리. 1만4000원. 진선희기자

누구나 피어나기 위해 태어났음을 안다면

한순 에세이 '이곳에 별이 잘 듭니다'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피는 꽃이지만 그는 이제 비로소 그 얼굴들을 본다. 자연은 소리없이 그에게 위안을 건넸다. "누구나 피어나기 위해 태어났다."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인 한순 도서출판 나무생각 대표가 다시 녹색의 중앙에 머물며 느낀 아리고, 슬프고, 환희로웠던 순간들을 기록해 한 권의 책을 엮었다. '이곳에 별이 잘 듭니다'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사계절 동안 시와 노래와 그림이 한데 어울려 존재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풀어냈다.

'약간 시골형'인 한 대표는 '약간 도회형'인 남편과 도시에서 나홀로 살고, 시골에서 사흘을 사는 '도시 시삼'의 일상을 건넌 중이다. 도시 생존의 터에서 생기를 잃어가던 즈음에 선택한 시골행이었다.

살기 위해서 찾았던 고향과 같은 시골의 자연은 '절대 고독' 속에 찬찬히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수령이 10년 가까이 된 굴참나무의 이파리가 몇 개나 될까? 가지를 늘여드리며 봄을 그렇게 빛내주던 빛꽃은 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쯤 달려 있을까? 그 많은 이파리와 꽃송이에게 골고루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나무를 보며 그는 '저 있는 성자'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른다고 했다.

자연은 무엇보다 그에게 모두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일러줬다. 혹독한 겨울살이를 견디고 햇살이 주황빛으로 사랑을 녹이는 봄날을 지나며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굴참나무 도토리들은 종자를 떨어뜨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번민에 싸인 시간에도 바람은 나무를 흔들



어 깨우고 있었다. 서로 약속하지 않아도 낡은 갈색 낙엽 아래 보호받듯이 자라던 자그마한 남보랏빛 각시꽃을 발견했을 땐 '스스로 그러한' 자연 앞에서 또 한 번 몸을 낮추게 되었다. 우리는 각자 주인공이면서, 스스로 그러한 모두에게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던 거였다. 에세이를 따라 나무에 단청기법으로 작업한 '화엄홍매' 등 김덕용 작가의 그림 10여 점도 만날 수 있다. 나무생각. 1만3800원. 진선희기자

축 임
CONGRATULATIONS
취 임
시단법인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



한신 김완석
(사)제주교육발전협의회 초대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항목 로타리클럽
회원 일 등

축 격
CONGRATULATIONS
합 격
제57회 세무사



김우준
(부:김경식 · 모:양혜진)
제57회 세무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산김씨 표선면중친회
광산김씨 표선면청년회
중친회장 춘보 · 청년회장 도용

축 훈
CONGRATULATIONS
수 훈
절탐산업훈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제10회 수산인의 날 절탐산업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7대 서귀포수협대의원협의회

축 임
CONGRATULATIONS
취 임
대기고등학교 총동문회 제19대 회장



이승철
(대기고등학교 3회)
대기고등학교 총동문회 제19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기고등학교 3회 동창회 회원일동